

요약

미국은 코로나 이전에도 주요 유럽 국가에 비해 평균 사망률이 높고 초과 사망자가 많았으며, 미국의 초과 사망자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미국의 초과 사망자는 최근에도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코로나19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한 사망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됨. 한편 초과 사망률과 보험 미가입률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 가입이 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미국은 코로나 이전에도 주요 유럽 국가에 비해 평균 사망률이 높고 초과 사망자가 많았다는 연구결과가 있음¹⁾

- 코로나 이전 미국과 유럽 국가(잉글랜드와 웨일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사망률을 비교하면 20~60세에서 미국의 사망률이 월등히 높았고, 2017년의 경우 미국 30대의 사망률은 유럽 국가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음
- 유럽 국가의 사망률을 적용하여 추정한 미국의 초과 사망자 수는 2000년 약 22만 명에서 2017년 약 4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초과 사망(Excess mortality)이란 정상적인 조건에서 기대되는 사망자 수를 초과하는 사망자 수를 의미하며, 팬데믹이나 특정 사건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음²⁾

○ 동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초과 사망자 수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증가하여, 2021년 초과 사망자 수는 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인구 규모를 통제하면 미국의 연간 초과 사망자 수는 2019년과 2021년 사이에 거의 두 배로 증가함
 -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증가한 초과 사망자 수의 54.5%는 코로나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됨
-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 증가는 팬데믹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³⁾
 -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는 환자와 걸린 적이 없는 환자를 12개월간 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던 환자의 1.2%가 사망한 반면, 코로나19 후유증이 있는 경우 환자의 2.8%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1) Heuveline(2023),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expansion of the mortality ga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ts European peers"
 2) Our World in Data(2023), "Excess mortality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COVID-19)"
 3) Devries&Shambhu&Sloop(2023), "One-Year Adverse Outcomes Among US Adults With Post-COVID-19 Condition vs Those Without COVID-19 in a Large Commercial Insurance Database"

○ 미국의 초과 사망자는 최근에도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코로나19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한 사망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됨

- 통계에 따르면 2023년 6월 사망자 수의 합계는 팬데믹 이전인 2017년부터 2019년의 6월 평균 사망자 수보다 20%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⁴⁾
 - 2023년 6월 사망자 수는 2022년과 비교했을 때는 약 24,000명 감소했지만 팬데믹 이전의 6월보다는 약 16,50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은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19 외에도 다른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미국 내 사망의 주요 원인은 심장병, 암, 코로나19로 나타났으며, 심장병과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각각 4.8%, 11.1% 증가했고 그 외 알츠하이머,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도 증가함⁵⁾
 - 심장병으로 인한 초과 사망의 비중은 코로나19를 제외하면 남성과 여성 각각 26%, 2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과 사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⁶⁾

○ 한편 초과 사망률과 보험 미가입률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 가입이 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⁷⁾

- 2019년 미국 주별 보험 미가입률은 4.4~24.5%로 다양했으며, 보험 미가입률에 따른 팬데믹 기간 동안의 초과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보험 미가입률과 초과 사망률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의 보험 미가입률이 10% 포인트 증가하는 경우 팬데믹 기간 동안 초과 사망률이 4.8% 포인트 증가했으며, 이는 동 기간 동안의 평균 초과 사망률인 18.4%에 비해 26% 증가한 수치임
 - 팬데믹 기간 동안 주마다 다른 정책과 백신 접종률이 초과 사망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통제하고 분석한 후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임
- 또한 연방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가 사망할 확률이 낮음을 발견하여 보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사망률과 건강보험 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있는 65세 이상의 중증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7일 이내 사망할 확률이 20%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개혁법 이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확대한 주는 다른 주에 비해 사망률이 9.4% 낮은 것으로 나타남

4) Think Advisor(2023. 8. 8), "Insurers: U.S. Mortality Is Still Higher Than Before the Pandemic"

5) Ahmad&Aderson(2020), "The leading causes of death in the US for 2020"

6) DA Gleit(2021), "The US midlife mortality crisis continues: increased rates from causes other than COVID-19 during 2020"

7) The White House(2022. 7. 12), "Excess Mortality during the Pandemic: The Role of Health Insurance"